

기후변화 대응 작물보호 미래 인재양성 교육연구팀

사업단 개요

- ❖ 단 장: 김 익 수(응용생물학과)
- ❖ 구 성 원: 응용생물학과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 연구기간: 2020.09.01~2027.08.31

사업단 목표

- ❖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작물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TOP 20위 수준의 대학원 위상을 확립하고,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와 국제화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HOME 한국

호주 수출 심비디움, 목화진딧물 방역 실증시험

2020년 9월 12일 18:11 | 2020년 9월 12일 18:11

(한국농어민신문 김재남 기자)



▲ 해외 수출인력을 심비디움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정대찬)은 호주로 시범 수출될 심비디움 철화 품종 고안 하나, 핵당테스트벨 씨너투비 등 4품종을 대상으로 수출검역 시 문제되는 목화진딧물 사전방역 실증시험을 추진한다. 심비디움 철화 수출용 현지 검역 시 매년 미소해충인 목화진딧물이 발견돼 화해 수출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농기원은 이번 실증을 위해 이온화 에너지 전자선 이용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농기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방사선연구소, 전남대 김익수 교수팀의 협업 연구 결과 전자선 300Gy~400Gy 처리로 목화진딧물의 100% 살충 및 품질 유지 효과를 확인했다.

전자선은 김대선이나 엑스선과 같은 이온화 에너지로 활용목적에 따라 적용마다 쓰이는 선량을 조절할 수 있어 농수축산물 살균살균 처리, 의료 방사선을 멸균, 각종 사료 및 포장재 멸균 처리에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농기원은 이번 수출하는 심비디움 철화 20cm의 고투과력을 가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양방사선연구소의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 전내이며 조사 장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양조사팀이 호주, 시드니 국립관대원을 방문해 배어이 협조를 받아 현지 도약 후 유통기관별, 철화 품종별 품질, 선선도 등도 조사를 계획이다.

이공주 농업연구사는 "이러한 최적 수출 수출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다하고 있는 수출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농가 등과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일본, 호주는 물론 수출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김재남 기자 kangn@agrinet.co.kr

-서적판매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멸종위기' 애기뿔소똥구리 "유전자 다양해서 오래 살 수 있대요"

00

필자 김대찬(좌) 단장 | 수필 김대찬(우) 19.14



애기뿔소똥구리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의 유전자 다양성이 높아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대 응용생물학과 김익수 교수팀과 2016년부터 최근까지 영광, 여수, 제주, 횡성, 서산, 용진 6곳의 애기뿔소똥구리 국내 주요 서식 집단에서 확보한 67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다양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전적 건강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사업단 추진 배경

- ❖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물·병·해충에 대한 개별적 이해를 기반 융합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 이를 위해 대학 차원의 교육과 인력 양성이 절실한 실정임
- ❖ 미래 인재 양성 교육 및 연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은 농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
- ❖ 기후변화 대응 작물보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 상황의 인식에 기반한 적극적인 교육 방안의 전환과 문제해결형 인력 양성이 필요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진로와도 직결된 사안임

사업단 추진 전략

